

SM, LG화학 고장으로 상승세 전환

FOB Korea 835-840달러 형성 ... 아시아 SM 마진 45달러로 2배 증가

SM 가격은 3월26일 FOB Korea 톤당 835-840달러로 17.5달러 상승했다.

아시아 SM 시장은 벤젠가격이 상승하고 LG화학의 여수 소재 2개 플랜트가 컴프레서 및 쿨링타워 고장으로 4월 6-13일 보수를 실시기로 함에 따라 강세가 이어졌다.

LG화학은 플랜트 고장으로 생산량이 1만톤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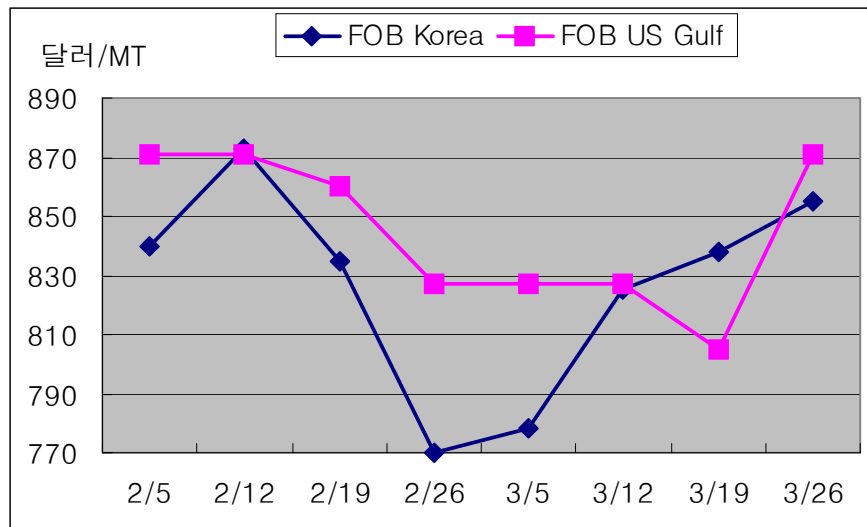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아시아의 PS 및 EPS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SM 가격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따라서 4월 하순 거래가격이 한때 FOB Korea 톤당 855달러까지 상승했으나 곧바로 하락해 835-840달러에 마무리됐다.

중국의 SM 내수가격은 ex-Tank Shanghai 톤당 8550-8600원을 형성했다.

3월26일 SM 마진은 벤젠가격 꺾린당 200센트 및 에틸렌 가격 CFR Taiwan/Korea 765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주에 비해 2배 증가한 톤당 45달러를 나타냈다.

SM 가격추이



한편, 미국의 SM 가격은 3월26일 FOB US Gulf 파운드당 39.00-40.00센트로 톤당 평균 871달러로 66달러 폭등했다.

<화학저널 2004/04/01>